

제4회 종교박물관·미술관 학술 심포지엄



한국박물관협회(회장 배기동)가 개최했던 이번 행사에는 지관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김중규 명예회장(한국박물관협회)을 비롯한 교계·학계의 내외빈 100여 명이 참석했다. 불교중앙박물관 개관을 기념해 '불교박물관 현황과 전망'과 '비전 2008~2012. 종교박물관·미술관의 전망과 과제'를 양대 주제로 2부에 걸쳐 진행된 심포지엄에서는 범하 스님(불교중앙박물관장)을 비롯한 다수의 학자가 종교박물관의 미래에 대한 중지를 모았다.

윤이흠 명예교수

한국 문화는 '어울림의 멋' 추구



불교가 한국 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데는 대부분 이견이 없다. 하지만 '불교가 한국 문화 속에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 하는 의문에는 일목요연하게 답을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현실에서 '불교미술에는 불교사상과 미학적 전통 외에 한국적 창의성이 담겨있다. 이것은 한국만의 어울림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내용의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불교미술과 민족 정체성의 문제'를 주제로 이 같이 주장한 이는 윤이흠 명예교수(서울대 종교학과)다. 윤 교수는 12월 17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제4회 종교박물관·미술관 학술 심포지엄의 기조강연을 했다. '불교가 한국 문화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불교미술이 한국미술의 정체성을 대표

불교미술 한국적 창의성 담겨...불교적 조화의 특징은 '無'

하는가의 문제에는 선뜻 대답하기 어렵다"는 말로 발표를 시작한 윤 교수는 민족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한국은 문화사적으로 중국의 유교, 인도의 우파니샤드와 불교, 자이나교, 중동의 유태교, 그리스 로마의 인본주의의 다원주의적 배경을 갖고 있다. 때문에 한국에는 주도적 세계관이 없다. 이런 배경이 결국 자기반성의 결여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그는 또 하나의 특징으로 '기복(祈福)'을 예로 들었다. 기복을 "이거지 동지에서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는 현상"이라 정의한 그는 "20세기 사회보장제도 구비 이전, 생존의 문제가 대두되던 때에는 종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기복이었다. 기복을 이해해야 불교미술의 이해가 가능하다"며 불교미술의 상당수가 기복적 동기를 담고 있음을 지적했다.

기원전 6~7세기부터 (중국만이 아닌) 스키타아족과도 교류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윤 교수는 설명했다. 결국 한국은 한문을 사용하면서 중국에 예속되기 시작했으나 문화 저변에 독자적인 문화 전통이 살아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인이 외부에서 종교를 수용할 때마다 해당 종교의 순수성과 정통성을 유지하려 했음은 물론, 수용의 자세에 있어 관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유지해 항상 조화를 추구해 왔음을 들어 한국인의 이상으로 조화를 강조했다. 윤 교수는 "조화는 서로 다른 두 요인이 새로운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면서 이것을 어울림으로 표현했다. 불교에서 보이는 의상과 지불의 선교 통합론, 유교에서는 성리론과 경제론을 든 퇴계와 성리론과 경제론을 든 율곡을 각각 예로 든 그는 한국인이 무엇보다 융합과 조화를 중시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특히 불교적 조화의 특징은 '無'에 있다고 정리했다.

한국의 불교미술 이해를 위해 윤 교수는 고구려 시대 미술을 설명했다. "한국이 한자문화권이기는 하지만 한문의 수용은 고구려에 태학이 설립된 4세기 말엽에 시작했다. 그 이전부터 독자적인 문화가 존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무용총에 나타나는 '손대결'과 각저총의 '씨름', 그리고 대영박물관에 소장된 스키타아의 버클을 비교·설명했다. 고구려의 두 그림에는 모두 고구려 사람이 유난히 코가 큰 서역인과 대결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기원전 1세기 작품으로 추정되는 스키타아의 버클에는 두 사람이 말 두필을 옆에서 쉬게 하고 직접 씨름하는 모습이 있다. "이것이 한국의 고대 문화가 중국보다는 서역과 가까웠다는 증거로

윤 교수는 "한국인의 조화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순종으로 해석되며, 한국의 조화는 형이상학적이 아닌 경험적 측면"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문화의 특징은 '어울림의 멋'을 추구함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조화를 경험할 때 "멋있다"는 감탄사로 표현한다는 예를 들었다. "지구촌 미래의 문화 창조를 위한 에너지가 한국 문화의 어울림에 있다"는 윤 교수의 발표에 참석자들은 "멋있다"는 감탄사를 자아냈다.

범하 스님

성보문화재 통해 문화 이끌어야

박물관 효율적 운영방안 발표

불교문화 콘텐츠 활용이 대안

범하 스님(불교중앙박물관장)은 '불교박물관의 전망과 과제'를 통해 조계종 중앙박물관으로서 불교중앙박물관의 자리매김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불교중앙박물관의 역할에 대해 스님은 ▲종교박물관이라는 기본 성격에 부합된 신앙을 바탕으로 한 전시 기본틀 마련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불교미술 홍보 ▲불교문화재 보존과 관리에 대한 중추적 역할 담당 ▲지방 성보박물관을 잇는 네트워크 형성 ▲각 지방 성보박물관의 개성을 부각시키는 조정자 역할의 다섯가지를 피력했다. 범하 스님은 "이것이 불교중앙박물관과 지방 성보박물관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이라 강조했다.

스님은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한 실천방법으로 불교중앙박물관의 전시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지속적인 특별전 개최를 통한 불교문화의 가치효용 극대화과 지방 성보박물관과의 부단한 교류, 둘째 불교유물 발굴과 보존 처리를 위해 명실상부한 불교문화재 전문병원 건립, 셋째 불교계 박물관의 네트워크 구축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범하 스님은 성보문화재에 대한 종단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함을 호소했다.

불교중앙박물관은 지난 3월 개관 이래 개관특별전 불전(佛殿)과 불국사 석가탑 발견 사리장엄구 특별전, 2007년 상설전 등 세 번의 전시를 했다. 성보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남다른 열정을



쏟고 있는 범하 스님의 발표는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 한다. 하지만 어떤 문화를 어떻게 활용해 문화의 세기로 만들지에 대한 방향 설정은 없다. 한국 문화 속에 살아있는 불교문화 콘텐츠 활용이 대안"이라는 주장으로 끝을 맺었다.

한편 이분회 행정관(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은 '사찰박물관의 현황 및 실태'를 통해 열악한 사찰 성보박물관의 실태와 인력수급 문제를 지적했다. 사찰박물관의 역할에 대해 이 행정관은 단순 수장고가 아닌 해당 사찰과 지역사회 주민문화공간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이 행정관은 "박물관에 대한 사찰 자체의 인식 제고와 해당지역 문화재와의 연계"를 주문했다.

조동섭 기자

단순한 석가탑, 화려한 다보탑 왜 다르게 만들었을까?

석가탑은 부처, 다보탑은 중생을 상징해

불국사 석가탑의 단순함은 남성미, 다보탑의 화려함은 여성미를 강조한다고 배웠다. 이들의 비밀(아름)을 조금 더 아는 이는 불국사에는 화엄과 법华的 교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단편적으로 주목해왔다. 석가탑과 다보탑으로 대표되는 불국사 대웅전 영역의 건축적 요소와 유물 등이 화엄에 입각한 붓다의 존엄성'과 '법화에 의한 중생의

접근'이라는 요지의 연구가 발표돼 석가탑과 다보탑이 금강했던 사람들의 의문이 풀리게 됐다.

한국종교학회 학술대회에서 염중섭(동국대 강사)씨는 '불국사 대웅전 영역의 이중구조에 관한 고찰'을 통해 화엄과 법화

의 교리 구조를 밝혔다. 염씨에 따르면 '석가탑과 다보탑은 불국사 대웅전 영역의 법화 사상적 가치를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다. 그는 석가탑과 다보탑의 의미를 <법화경>의 '견보탑품'에서 구했다. '석가모니 불의 꾸밈없는 단순함이 석가탑의 의연하고 고고한 자태'라는 염씨는, "다보탑은 석가모니불이 <법화경>을 설한 뒤 상주함을 증명키 위해 땅 속에서 솟아오른 탑"이라

설명했다. "화엄이 원융적 세계관을 주장한다면 법화는 일불승(一佛乘)에 근거한 모든 중생의 성불수기를 상징한다"는 염씨는 석가탑, 다보탑이 위치한 불국사 대웅전 영역은 "화엄에 의해서는 국토의 통일(기세적 원융)을, 법화에 의해서는 백성의 통일(중생세간적인 근제화)을 상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운교·백운교, 수미봉종각

과 (대웅전 안의 붓다를 모신) 수미단, 신중단과 화엄성종을 화엄으로 해석했다. 법화로는 석가탑, 다보탑, 대웅전과 영산회상도를 풀이함으로써 불국사가 상징성이 강한 건축물임을 증명했다. 불국사가 상징하는 화엄과 법화의 이중성이 화해와 평등을 넘어 불국정도로 통섭됐다. 염씨는 이것을 "이이일(二而一)하며 일이이(一而二)하다"고 정리했다.

조동섭 기자

중앙불교대학원 학인(승려, 행자) 모집

- ◆ 모집학과 : 사미과 6개월 과정 (3개월 기본교육 - 습의, 3개월 통신교육)
- ◆ 원서접수 : 2008년 1월 5일까지
- ◆ 개강일시 : 2008년 1월 7일 (월요일)
- ◆ 제출서류 : 입학원서, 주민등록등본 1본, 사진 5매
- ◆ 자격요건 :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스님이 되고자 발심한 초심자(행자)
- ◆ 특 전
  - 6개월 기본교육 이수 후 사미계 수계득도 하도록 지도하고 사찰(포교원) 장건 시 초심자라도 여법히 법회를 병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 졸업 후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이 지속됩니다.
- ◆ 사미과 교수 : 현봉 (통도사 출가, 보광선원 금강선원, 現 무사암 주지)
- ◆ 수강료 : 일백오십만원(지도비, 삼개월 숙식제공)
- ◆ 문의처 : 본 대학 사무국 (대표전화 031-676-0908 팩스 031-676-0206)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리 산 44번지



중 앙 불 교 대 학 원